‘코로나 극복’에 韓日불교 함께해

日신뇨엔, 코로나 극복 동참

소의경전 〈대반열반경〉 독경
종파와 국경 넘어 하나되다
세계 평안과 건강을 기원해
“운명공동체로 함께 극복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일본 종단 신뇨엔 부산정사가 5월 10일 부산 송상현 광장 특설무대에서 부산연등문화제 ‘코로나 19 극복 릴레이 기도’에 동참해 한국의 국운융창 발전을 기원했다.

신뇨엔(眞如苑)은 〈대반열반경〉을 소의경전으로 수행하는 일본 불교 종단이다. 일본 진언종 전등법맥을 잇고 있다. 신뇨엔에서 수행하는 불자들이 한국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안정되기를 기원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산불교연합회에서 진행하는 호국 릴레이 기도에서다. 신뇨엔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세계일화(世界一花)를 실천하는 장이며 다함께 기도하는 원력이 전 세계에 널리 퍼져 갈 것”이라고 참여 취지를 밝혔다.

신뇨엔 부산정사(이사 정경)는 5월 10일 부산 송상현 광장 특설무대에서 부산연등문화제 ‘코로나 19 극복 릴레이 기도’에 동참했다.

신뇨엔은 기원독경 의식에 앞서 입정으로 시작을 알렸다. 이어 부처님께 발원문을 낭독하며 병마를 이겨내 함께 일어서기를 기원했다.

신뇨엔 정경 국원은 “나와 가족, 이웃은 더불어 사는 운명공동체이다”며 “인종과 종교, 국경과 신분을 초월하여 지구촌 모든 인류가 화합하길 바라며 서로 용기를 북돋아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가 불자들은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자 유언이었던 〈대반열반경〉을 독경했다. 〈대반열반경〉에 있는 삼귀의부터 차례대로 독경하자 길을 지나던 시민들은 걸음을 멈추고 함께 두 손을 모아 합장했다.

김지희(34 · 연제구)씨는 “독경 소리에 마음이 편안해진다. 일본 종파는 솔직히 처음 봤는데 한국을 위해 기도를 한다니 국제 상황과 달리 역시 불자들다운 모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미영(44 · 부산진구)씨는 “불교 독경 소리를 들으러 6시쯤이면 송상현 광장으로 나온다”며 “오늘은 일본어라 새로웠고 내 마음도 화합을 기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신뇨엔 기도 독경은 부산불교연합회에서 준비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돼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신뇨엔 정경 국원은 “재난을 극복하기를 기원하며 현재 일본 총본산에서도 기원을 올리고 있다”며 “오늘 기도는 종파와 국경을 초월해 전 세계로 퍼져 갈 것이며 세계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한국불교를 보면서 정말 남다르고 훌륭하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신뇨엔의 ‘신뇨’는 ‘여여(如如)’를 상징하는 ‘진여(眞如)’에서 나왔으며 〈대반열반경〉(소의경), 전등법맥(재가출가), 신통영묘(접심수행)를 근본으로 삼아 수행한다. 신뇨엔은 1936년 개조 이토 신죠(1906~1986)가 개창했으며 현재 전 세계 20개국에 정사를 두고 있다. 개조 이토 신죠는 일본 진언종 본산인 교토 제호사에서 수행했으며 재가불자를 위한 수행체계를 확립하고 일상생활 가운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도록 지도했다. 현재 한국에는 서울정사, 부산정사, 창원포교원, 제주포교원이 있으며 특히 부산정사는 장학금 지원, 불우이웃돕기 등 지속적인 보살행으로 한 · 일 불교 간 화합 교류 주자로 앞장서고 있다.

미타선원, 청소년 위한 전문복지 나서

(재)영도문화복지재단, ‘청소년 상담복지 및 지원센터’ 개원



재)영도문화복지재단이 부산 중구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개원했다. 사진은 제막식 모습.

(재)영도문화복지재단이 부산 중구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개원했다.

영도문화복지재단(이사장 하림)은 5월 11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개소식을 봉행했다.

개소식을 축하하기 위해 이사장 하림 스님, 법인 이사 종호 스님과 하태완 센터장, 최진봉 중구청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마음 편한 공간’이 모토이다. 대상은 9~24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호자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이 대상이다. 여러 상황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위해 전문 상담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꿈드림은 교육과 취업, 자립을 지원한다. 건강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부산 중구 남포동에 위치한다. 남포동은 부산을 대표하는 번화가 중 하나이다. 술집 및 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시설이 많은 곳에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자리했다. 아이러니하지만 오히려 기대를 모은다. 번화가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많을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번화가 중심에서 도심포교 일선에 서 있는 미타선원과 닮았다. 오고가는 관광객들과 외국인들에게 문이 언제나 열려 있어 쉽게 한국불교문화를 접하도록 돕지만 그만큼 위험도 많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접근성은 좋지만 청정한 환경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환경을 위해 미타선원은 60여 평에 가까운 3층 센터실 뿐 아니라 건물 지하도 임대했다. 지하에는 단란주점이 방문하는 청소년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번화가 중심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자리하게 된 것은 미타선원의 노력으로 가능했다. 미타선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명상을 꾸준히 진행하며 본격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고심해왔다. 재단법인 영도문화복지재단을 출범 후 체계적으로 청소년을 돕기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수탁업체로 공모해 올해 1월 30일 선정됐다. 이후 2월 중구청과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전문 상담과 행정을 이끌어 갈 직원을 채용했다. 지난 4월 20일 공식 업무를 시작했지만 개소식은 코로나19로 인해 5월에 개최됐다.

개소식에서 재단 이사장 하림 스님은 “청소년이 우리의 미래라고 하지만 정서적 돌봄 및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새롭게 탄생한 만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 이사 종호 스님은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 큰 재산이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하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당선 후 첫인사를 하는 행사인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장소가 문을 열어 기쁘다”며 “중구는 부산의 중심가이고 청소년이 많이 찾는 곳이다. 청소년을 위한 맑고 청정한 공간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태완 센터장은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을 위해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청소년 복지 구심점이 되고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창녕 도성암 불교대학 졸업식 개최

대휴 스님 “신행의 출발점이자 행복” 강조



도성암이 5월 10일 경내 일대에서 ‘도성암 불교대학 및 예향다회 졸업식’을 진행했다.

창녕군에서 바른 신행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는 도성암 불교대학이 졸업식을 진행했다.

창녕 도성암(주지 대휴)이 5월 10일 경내 일대에서 ‘도성암 불교대학 및 예향다회 졸업식’을 진행했다. 졸업식에는 주지 대휴 스님과 한정우 창녕군수, 윤영삼 동문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졸업식은 개식을 알리는 타종에 이어 △헌다(예향다회6기 졸업생) △삼귀의 △찬불가△반야심경 봉독 △내빈소개 △졸업장 수여 △상장수여 △예향다회 졸업장 및 수료증 수여△입학생 선서 △축사 △사홍서원 △산회가 순으로 진행됐다.

불교대학 성적 우수상은 김정숙 졸업생이 받았으며 불교대학 표창장은 서정태 · 신선정 졸업생, 불교대학 개근상은 서운곤 · 김종희 · 최현옥 학생이 수상했다.

대휴 스님은 “졸업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란 말이 있다. 부처님의 진실한 참뜻을 알고 대중포교와 자비행을 실천해 진정한 행복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성암 불교대학은 2008년 3월 불교대학 제1기 입학식을 시작으로 현재 13기 졸업생을 맞았다. 졸업생은 총 312명으로 창녕군에서 불교 포교사 양성지로 활동해왔다. 졸업과 동시에 20명의 학생이 입학했으며 아울러 불교문화를 통한 포교를 위해 예향다회 수업도 진행하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군산 동국사 군산불교대학 개설

지혜와 자비 겸비한 불자양성 목표



문화재 답사 등의 교육과정과 불교와 환경, 불교와 법률 등 전문 강사진의 특강과 염불, 불화배우기 동아리 활동 등 알찬 교육일정으로 진행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국에서 불교세가 가장 약한 지역 중 한 곳으로 손꼽히는 군산에 불교대학이 개설됐다. 국내유일의 일본식 사찰인 군산 동국사(주지 종걸)는 5월 11일 동국사 100주년 기념관에서 군산불교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군산지역에서는 최초로 조계종 신도 전문교육기관 인가를 받은 군산불교대학은 1년간의 교육과정 동안 조계종의 신도교육전문 교재를 활용해 불교입문,



안동불교사암聯 불기 2564년 봉축 점등식

안동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도륜)는 5월 9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기원하고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불기2564년 봉축점등식을 안동시 웅부공원 내에 위치한 시민의 종각 앞 광장에서 봉행했다.

점등식에는 안동불교사암연합회장 도륜 스님과 고문인 천태종 해동사 덕중 스님과 구덕암 안동불교거사림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